

### [부고]



#### [故 강학봉 장로]

지난 10월 29일 오전 11시에 와이오밍에 있는 French Mortuary에서 강학봉 장로 장례식이 김기천 목사 주례로 있었습니다. 강학봉 장로는 1935년 8월 2일 경남 문산 출생으로, 2009년 10월 24일 오후 2시 30분 경 심장마비로 Presbyterian 병원에서 올해 74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학봉 장로는 1959년도에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1975년에 현대그룹에 입사해서 주로 선박을 제조하고 개조하며 수리하는 분야를 책임지고 1993년까지 이사로 근무하다 은퇴하였습니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2003년도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장로로 취임하였으며, 소천 당일까지 예배에 참석하는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영심 권사와 아들 강상욱 집사가 있습니다.

### [한인회 광고]

오는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 업무가 있습니다. LA에 있는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한인들의 민원 업무를 돕기 위하여 알버커키를 방문합니다.

### [2009 KUMC Sunday School Youth Retreat]

학생 부흥회에 알버커키 청소년들을 초청합니다

- Title: *Disciple Now* 2009 **장소: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 Date: Fri., Nov. 13<sup>th</sup> Sat., Nov. 14<sup>th</sup>, 2009
- Speaker: Student Pastor, Chris Groves from the 1<sup>st</sup> Baptist Church in Moriarty, NM.
- Target group: 7-12 G students **연락처: 803-7716**
- Praise leader: Praise team from the 1<sup>st</sup> Baptist Church in Moriarty

### 내용 Contents

부고/한인회 광고/2009 KUMC Sunday School Youth Retreat ▷p.1  
한인회 소식/어버이회 소식 ▷p.2  
한국학교 소식/외국인이 본 한글 ▷p.3  
Celebrating Our Multi-cultural Heritage ▷p.5  
세 살짜리 아이가 본 영혼의 세계 ▷p.6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p.8  
매혹의 헤이메즈산 ▷p.10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p.13  
그분의 손에 있는 세상이건만! ▷p.14  
그 시간/요 임금과 왕비 ▷p.15  
종교 소식/목렐리의 삶/생활상식 ▷p.17  
뉴멕시코 한인업소 ▷p.18

### 광야의 소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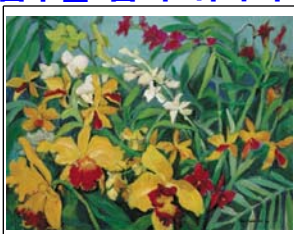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mailto: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 [한인회 소식]

### ‘2009 추석맞이 김치축제를 마치고’

금번 저희 김치축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La영사관(\$500), AFC 아시안 패밀리 센터(\$150), 뉴욕-장미수에서에서 한복 네 벌과 전통혼례식을 위한 사모관대, \$1에서부터 \$1000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멕시코주 교역자 협회의 목사님들과 맛있는 김치로 직접 봉사해 주신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여전도회 회원님과 교우님들, 또한 멀리 라스크루세스(4시간거리)에서 참석하여 주시고 후원금도 도움주신 교민여러분, 그리고 UNM 한국학생회(김형섭 회장 및 학생들), 아리랑, A-1, Kim's 한국마켓 외에 문영란님 및 이름 없이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준비부터 행사 마치는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많은 분들(약 400여명)이 참석해주셔서 한국 김치에 이렇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제 1회 김치축제가 첫 행사인 만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무료시식하게 하고 판매는 하지 않는 시식 중심의 행사였다면, 올해는 한인회관 건물 리모델링 등의 공사경비에 도움을 주고자 약간의 음식을 시식하게 하고 원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바자회 중심의 행사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준비해 왔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아쉬움도 있군요. 다음 해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조직적으로 잘 준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후원비 \$2,750.00, 김치축제 바자회 이익금 \$1,658.00, 합 \$4,408.00의 수익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으로나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씀과 충고로 더 발전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장 김두남

## [어버이회 소식]

매주 목요일에 가지는 어버이회 모임을 지난 10월 1일에는 추석잔치로 가졌습니다. 정경숙 어머니님의 후원으로 한복을 차려입고 송편과 추석음식을 준비해서 1년 동안의 결실과 풍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은 당일 일정으로 T or C 온천행 예정이며, 11월 19일 어버이회 모임은 추수감사절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 { 2009 추석맞이 김치축제 행사 }



[행사이모저모/ 인사말씀, La 김재수 총영사 축하 대독, 금연에 대한 인형극, 설문조사, 전통혼례식]



[자원봉사자들/김치시식팀, 주방봉사팀, UNM한국학생회]

## { 어버이회 추석맞이잔치 }



## [한국학교 소식]

### 뉴멕시코 한국학교

#### NM KOREAN LANGUAGE SCHOOL(NMKLS)

영어를 너무 중요시하는 요즘, 이민 1.5세대 한국어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당신의 아이들은 한국어를 꼭 배워야한다는 믿음 때문에 미국인 아버지도 직접 성인 한국어 반을 몇 년째 다니고 계시는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한국어를 배워야지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알 수 있다 하여 온 식구가 무조건 한국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과 가족이야 기입니다.

-5편 (Celebrating Our Multi-cultural Heritage)에 계속

### 청소년 / 성인 한국어 회화반

####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수요일 Wednesdays, 6 - 8 pm

###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 한국어반 Korean Language Classes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 미술반 Art Classes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 연락처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외국인이 본 한글

One example of unique Korean culture is Hangul, the Korean alphabet.

There are no records in history of a king made a writing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common people except in Korea.

The Korean alphabet has an exact purpose and objective.

So its use cannot be compared with other languages.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한글이다.

세계 역사상 전제주의 사회에서 국왕이 일반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안한 유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한글은 문자발명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했다.

그러므로 그 효용성은 다른 문자와 비교할 수 없다.

For example, each Chinese character has a meaning, so people have to memorize all of them, but the Korean alphabet is made of phonetic letters just like English.

Anyone can learn Hangul in a day, that is why it is called 'morning letter'.

It is easy to learn because it can be put together with 10 vowels and 14 consonants.

Hangul has 8,000 different kinds of sound and it is possible to write each sound.

예를 들면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모든 글자를 다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표음문자이므로 배우기가 쉽다.

그래서 한글은 아침글자라고도 불린다. 모든 사람이 단 하루면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24개의 문자로 약 8,000음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즉, 소리 나는 것은 다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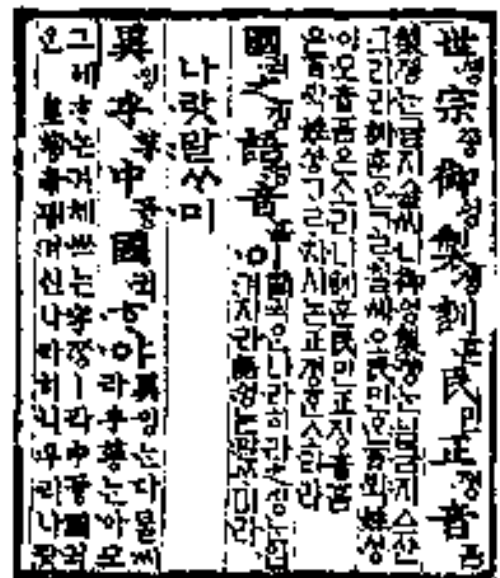
Because Japanese letters imitate Chinese characters, they cannot be used without Chinese characters.

The Chinese government secretly sent scholars to the United States to alphabetize its language.

Chinese is too difficult to learn, therefore the illiteracy rate is very high.

Chinese thought it would weaken national competitive power.

일본어는 한자를 모방한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 없이 독자적인 문자 수행이 어렵고 또, 한자는 너무나 배우기 어렵다. 한때 중국정부는 은밀히 학자들을 미국에 파견해 한자의 알파벳화를 연구한 적이 있다. 그것은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Hangul has an independent reading and writing system.

It can be used on its own, but some old generations like to use Hangul along with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한국인들은 한국어로만 말하고 쓰는 완벽한 언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성세대는 한자를 섞어 사용하고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is is an anachronism and absolutely against the globalization of Hangul.

Even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weak points of its writing system for the coming 21st century.

중국 정부조차 21세기의 미래 언어로서 약점을 인정한 한자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 착오이며 한글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Latin was used as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It has been used as a custom or religious authority for people who in Western societies, Latin is disappearing.

라틴어는 카톨릭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다.

관습상 또는 종교적 권위를 위해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금 서구에서 라틴어는 사라져 가는 언어일 뿐이다.

Hangul was invented 500 years ago. but it has only been used for 100 years by all Koreans. Now it is standing in the world proudly with its value. Korean has been chosen as a foreign language in som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Now large Korean companies are building Factories in some Asia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se companies have invested a lot of money. The managers of those companies are also learning Hangul.

한글은 창제된 지 500년이 되었지만 실제 발전의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 한글이 세계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뚝 서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의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해 놓았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아시아나 동부 유럽 국가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 간부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다.

It is time to invest money and to make an effort to develop Hangul for the 21st century like the French government has done.

The language of the future has a strong economic value.

Hangul is seven times faster in computer operation ability than Chinese or Japanese.

이제 한국 정부도 프랑스 정부가 했던 것처럼 한글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1세기의 언어는 강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컴퓨터에서 한글의 업무능력은 한자나 일본어에 비해 7배 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When Windows 95 appears on your screen, Hangul is breathing on the tips of your fingers beyond the time barrier.

윈도우 95 화면을 보고 더블클릭을 하는 순간 한글의 위력은 500년이란 시간의 벽을 넘어 손끝에서 살아 숨 쉰다.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age of information.

National competitive power depends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information.

Therefore the national goal for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to end illiteracy.

The American literacy rate is only 79%.

The Korean illiteracy rate is near the zero percent mark, because Hangul is easy.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다.

즉 정확한 정보의 양과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는 것도 문맹의 퇴치이다.

현재 읽고 쓸 줄 아는 미국인은 고작 7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쉽고 간결한 한글 덕분에 문맹률 0%라는 경이적인 기록에 육박한다.



## Celebrating Our Multi-cultural Heritage

By Peter Blemel

On a summer evening in 1992 I met Okmi Jun while learning to dance the country and western two-step. In addition to becoming my lifelong dance partner, my wife would also become my personal guide to the world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ur extended families have lovingly adopted each of us, while we in turn have adopted each other's cultures. Okmi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and raised with Korean culture deeply ingrained in her daily life, even after immigrating to California. I was born in Cincinnati Ohio. I had a typical childhood, but was immersed in American culture and only vaguely aware of my German heritage. Shortly after I was born my father moved our family back to western New York, to Rochester where he pursued his education and career. As a young boy, I only saw my grandparents and great grandparents on holidays and special occasions. I was still in elementary school when my father's career brought us to Albuquerque, where visits with my grandparents became very infrequent. I don't have any memories of my mother's grandparents, and know very little about them. Likewise, I don't remember much about my father's grandparents. German culture could be found in the kitchen when my father made spatzel and goulash, but opportunities to experience it outside of our home were rare.

My parents told me about my pedigree but I did not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those cultures until I started learning German in high school. My father spent his childhood in western New York where many German immigrants settled after arriving in America. I have always enjoyed his stories about his boyhood, and family life in a small town. While driving by a small stream near my grandmother's house, he told me about trapping and fishing many of the nearby streams. He reminisced about wearing snowshoes to check his traps in frigid New York winters. He took me to visit his grandmother's farm and small community, where my own memories of playing in the fields were awakened. When my own career gave me opportunities to visit my relatives, my grandfather told me about growing up in a German-American family and speaking German in

his early life. Before he passed I felt that our common interest in the language established a bond that spanned our generations, though my fluency doesn't match his or my father's. It was during those visits that I came to understand that our heritage and culture enrich our lives. They are both a gift and a blessing.

Albuquerque is unique because of its unprecedented growth over the past few decades. Many residents are transpla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have many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Hispanic culture is omnipresent, but while talking to acquaintances of other cultural backgrounds I realized that passing down cultural identity to children is a challenge in the cacophony of our own American culture. Work, school, sports, scouting, and countless other commitments nibble away at the time and energy needed to teach our children about their heritage. In my own family, the German language and culture were practically lost after only a few short generations in this country. My grandmother is the keeper of our oral history, and when she passes we will have lost a precious gem.

Okmi and I realized that Korean culture would have to be a part of our everyday lives, if we wanted our children's lives to be enriched by it. We decided that we would immerse our children in cultural experiences as much as possible, making Korean culture a part of their everyday lives. We began with their names. Our surname is distinctly German, which Okmi had taken as her own when we married. Most of our friends gave their children American names, but we felt that having Korean names would give our children a stronger sense of cultural awareness. She told me about the traditional way that Korean children were named in her parents' generation. We decided to ask her grandfather to name our children. One of his choices roughly translated to "harbor angel", which seemed out of place in the American southwest. He gave us several contemporary choices, and we soon settled on "Hyunju" which means "wise gem". When our son was born 18 months later, his great-grandfather named him "Insun", meaning "generous and virtuous". We chose middle names that honor people in our lives that have influenced us, but our children proudly use their Korean first names every day.

There is an old saying that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we are teaching our children. If we fail to set an example for them, then we can't realistically expect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and learn. We joined a German-American club, where my father is the envy of everyone as he dances with Hyunju.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s a family activity. Okmi volunteered to teach at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when the children were younger, and has moved on to volunteer as the Principal. I have been taking Korean classes in an effort to set a strong example, although I have to admit that my children learn much faster than I do. They understand that learning to read and write, as well as speak, the Korean language is a part of our lives.

Our children's sense of identity is cultivated in part by their relationships with our families and friends. My in-laws patiently speak Korean with our children, giving them practical conversational experience even if they need to slip in an English word or two. Insun is my mother in-law's biggest culinary fan, savoring every home cooked Korean meal she serves us. They even have their own favorite Korean programs on their grandparents' satellite television. We hope that the time spent with our parents and siblings, and vacations spent visiting far away relatives, will inspire our children to maintain a sense of family identity with their future children. We cultivate friendships with families in the Korean community. Our children sing happy birthday in Korean to other children, and have watched with anticipation as a birthday boy chose pencils at his first "dol" birthday party.

Our success in keeping culture alive in our family is measured every day by the enrichment of lives. My father loves to fish the mountain streams of New Mexico with Hyunju and Insun, sharing his knowledge of beaver dams and loons. Our children have celebrated my parents' coronation as Prince and Princess of a German club ball. I feel immense pride when my son makes a formal bow and listens to his Korean grandparents' wisdom on New Year's day. We learned about daily life in Korea first hand while visiting relatives in their homes. My children are able to interact with their grandparents and great-grandparents, some of whose only fluent language is Korean. Hyunju speaks Korean with our friends and their children. Hyunju and Insun

modeled designer han-bok on a fashion runway, when a fashion show on tour from Korea came to Albuquerque. I have basked in the praise of a tour guide in Korea, telling me that my children were the first who didn't beg for Mc Donald's after a week of Korean restaurants at every meal. We have met students, designers, educators, artists, and many other fascinating Koreans. These are only a few of the many experiences that I hope will inspire my children to continue their journey as Korean-German-Americans long after they leave our nest.

## 세 살짜리 아이가 본 영혼의 세계

난 워싱턴으로 출장을 가던 중이었고, 비행기를 바꿔 타기 위해 텐버에 착륙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다.

내가 머리 위의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을 때, 로이드 글렌 씨는 즉시 유나이티드 고객담당자를 만나 달라는 내용의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난 그 방송을 듣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나가기 위해 출입구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신사 한 사람이 비행기에서 나가는 모든 남성들을 붙잡고 흑시 글렌 씨가 아니냐고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젊은 신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글렌 씨, 선생님의 댁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일인지, 혹은 누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군요.

선생님을 전화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그럴 테니 직접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보시죠."

가슴이 사정없이 방망이질 쳤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낯선 사내를 따라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항공사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미션 호스피탈이란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나의 세 살짜리 아들이 차고 문 밑에 오랫동안 끼어 있었는데 아내에게 발견됐을 땐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다는 것으로, 다행히 이웃에 의사가 살고 있었던 덕분에 브라이언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이미 심폐소생술과 갖가지 응급조치가 취해졌으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을 때쯤에 브라이언은 되살아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심장보다는 뇌에 얼마나 큰 손상이 갔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차고 문이 아이의 심장 바로 위에 있는 흉골을 압박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슴이 심하게 짓뭇개진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에게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나 역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되돌아가는 여행이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결국 차고 문 사고가 발생한지 6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병실로 들어서서 힘없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주변에는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고, 여러 가지 튜브들과 함께 인공 호흡장치가 아들에게 연결돼 있었다.

그 옆에 서있는 아내에게 눈길을 돌리는데 그녀는 날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게 보였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의사들은 브라이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으며, 진단 결과 심장도 정상이었다.

벌써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두뇌가 손상을 입었는지 아닐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했다. 그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내는 계속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난 그녀의 말과 신앙을 생명줄처럼 의지했다.

그날 밤과 그 다음 날에도 브라이언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전날 출장을 떠난 것이 영원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오후 두 시가 됐을 때 마침내 아들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나 앉아 내가 이제껏 들어본 중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들려주었다.

내게 가녀린 작은 팔을 뻗치며 "아빠 안아줘."라고 말한 것이다.

다음날,

신경학적으로 나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서 아이의 기적적인 생존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때 느낀 감사와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 며칠 간 우리 집안은 특별한 가족애로 가득 했다.

브라이언의 두 형이 어린 동생을 그렇게 아껴줄 수 없었고, 그 아이들이 아내와 나의 눈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우린 축복을 받은 느낌이었고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브라이언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 여기 앉아 보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브라이언은 종종 짧은 문장으로 많은 의미를 전달하여 아내를 놀라게 하곤 했기에 아내는 곧바로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그 애의 신성하고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내가 차고 문 밑에 끼어 있었

을 때 기억하세요? 그건 너무 무거워서 몹시 아팠죠. 난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고, 너무나 아팠는데 그때 '새들'이 왔어요."

아내가 물었다.

"새들이라고?"

"네, 새들은 쉬익 소리를 내며 차고로 들어와 날 보살펴 줬어요."

"그들이?"

"네, 그들 중 한 명이 가서 엄마를 데려온 거죠. 그녀가 엄마에게 내가 문 밑에 끼어 있다고 알려준 거구요."

순간 경건한 분위기가 방안에 가득 찼다.

아내는 세 살짜리 아이가 죽음이나 영혼에 대해 어른들과 같은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며, 그저 하늘을 새처럼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그 미지의 존재들을 '새들'로 표현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새들은 어떻게 생겼지?"

"아주 아름다웠어요. 모두 흰 옷차림이었는데 어떤 새는 흰색과 녹색 옷을 함께 입고 있었지만, 흰옷만 입은 새가 더 많았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니?"

"아기가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아기라고?"

"차고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 말예요. 그때 엄마가 와서 차고 문을 열고 아이에게 달려갔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할 뻔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제로 그때 브라이언의 육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짓뭉개진 가슴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우리를 떠나지 말아라. 제발 우리 곁에 있어줘."

그러면서 그녀는 당시 아이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상공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린 여행을 떠났어요. 아주, 아주 멀리 갔죠."

아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듯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 듯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게 무지 어려운 눈치였다.

"우린 하늘로 아주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예뻐요. 새들이 아주, 아주 많았어요."

아내는 너무나 놀랐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이제껏 알지 못했던 지극한 감미로운 위로와 감동이 가득 차는 동안, 브라이언은 지상으로 돌아가 '새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새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이다. 한 남자가



아기를 새하얀 간이침대에 눕히는 것으로 보고 그에게 아기는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브라이언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새들은 그때 브라이언에게 구급차를 따라 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의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새들이 무척 예쁘고 평화로웠기에 지상에 돌아가고 싶은 않았다고 했다.

그때 휘황찬란한 빛이 비쳐들었다. 브라이언은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따스했고 자신은 그 빛을 무척 사랑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빛 속의 누군가가 브라이언을 얼싸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너를 사랑하지만 넌 돌아가야만 한다. 돌아가서 야구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새들에 대해 말해주려무나.”

그리고서 그 빛 속의 인물은 브라이언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한 시간 가량 지속됐다.

브라이언은 ‘새들’이 우리와 늘 함께 하지만 우리의 현재 눈과 귀로는 그들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새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부분에서 브라이언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늘 속삭인다는 것이다. 그는 새들에게 들은 얘기를 거의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

“엄마, 나에게도 계획이 있고, 엄마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아빠에게도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대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만 해요. 새들은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후 몇 주에 걸쳐 브라이언은 종종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다.

세세한 부분까지 변함이 없었고, 순서도 전혀 틀리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됐고, 기존의 메시지가 더 명확히 밝혀졌을 뿐이다.

아이가 새들에 관해 얘기할 땐, 어른 뻘치게 놀라게 만들었다.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새들’에 관해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한결 부드러운 안색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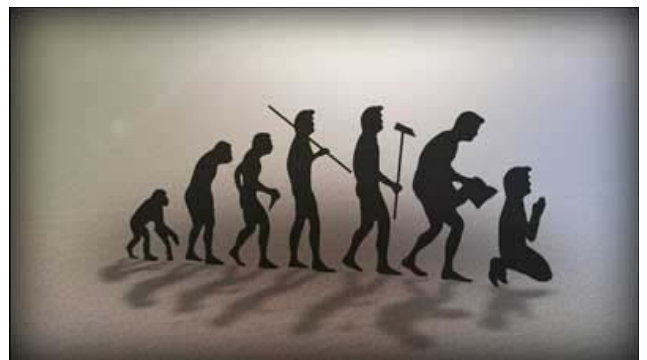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때 그 사건이후 우리 가족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낮은 울타리

##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김준호 장로

진화론 하면 의례 찰스 다윈을 생각하게 된다. 그가 제창한 진화론은 현대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이란 책을 발간하자 유럽 전역에서 진화론에 대한 찬반론이 격하게 대립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에 합세하여 창조론을 비판했다. 그 결과로 과학에서 진화론은 거의 정설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창조나 진화나 하는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레이저 공학자라고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공학자가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논하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학자로서 간단하게나마 양편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윈은 1831년 그의 나이 22세 때에 영국 해군 측량선 비글(Beagle)호에 선장 핏츠로이(Fitzroy)와 함께 승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윈은 교회의 성직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도중에 캠브리지 대학의 식물학 교수였던 헨슬로우(Henslow)의 추천에 의해 비글 호에 승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인생항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는 남아메리카,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답사하였다. 향해 도중에 그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였다. 그 섬 근방에 사는 거북이들의 모양, 색깔, 두께, 크기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또한 핀치(finch)라고 불리는 새의 부리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런 관찰은 후에 다윈이 진화론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진화론에 중심이 되는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란 자연환경에 적합한 것만 살아남고 부적합한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윈은 1832년 9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근방(Punta Alta)에서 1만 2천년 전에 살았다고 알려진 포유동물 화석들을 채굴했다. 그는 이것들을 헨슬로우 교수에게 보내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었다. “선생님, 여기서 매우 진기한 화석을 채굴하였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윈은 항해 5년 후인 1836년에 영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때 그는 자기의 관심이 성직자로 목회하는 것보다 생물학 연구에 더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2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면서 집필 중이었던 책을 발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이 진화 사상은 생물의 기관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기관은 도태, 퇴화한다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영향을 받았다. 다윈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구상의 생물은 한 종은 다른 종으로 분화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근거로 그는 종의 분화를 설명하는 생명의 나무 도표를 만들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웠듯, 이 모든 생물은 단세포 동물(예로써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세포가 많은 다세포 동물로 진화되고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치가 맞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과학은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실험적으로 실증이 되어야 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왔다. 그러면 어째서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는가?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은 과학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진화론은 완벽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한마디로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며 찾고 있는 연결고리라는 중간 화석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진화론은 열역학(Thermodynamics)의 제 1법칙(Energy 보존의 법칙)과 제 2의 법칙(모든 System 내의 Entropy는 항상 증가한다)에 역행한다. 즉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다는 것은 위에 법칙들을 위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다윈의 진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1953년에 크릭(Francis Crick) 박사와 왓슨(James Watson) 박사는 DNA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 DNA를 따져 보니 진화된다는 이론이 허구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다윈의 생명나무를 보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으로 설명한다. 현대 최신과학 실험기계를 사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죽어버린 진화론을 위해 장송곡 부를 생각은 안하고 또 역지를 부리고 있다. 인간의 염색체(Chromosome)는 46개, 침팬지의 염색체는 48개라고 한다. 진화론자들은 48개의 염색체가 융합이 되어서 46개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렇게 되는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염색체 수만 따진다면 침팬지가 더 고등동물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진화되어 원숭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언급하면 다윈의 생명나무는 물고기에서 다리가 달린 양서류(개구리, 두꺼비 등)가 진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완벽한 입증에는 실패했다. 창세기에는 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설명되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창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믿는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존 로크도 지적인 바와 같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들의 신실성은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성경은 거의 1400년 동안 40여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으로 인류사에 길이 남을 보물이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당연히 이사야의 예언처럼 인류 역사 안에 출현하였다.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서 실제로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훌륭한 증거가 된다.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빛, 물, 공기 등이 나와 있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손수 창조한 아담과 이브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했다.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는 달리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브를 만들 때는 더 소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다윈의 업적이 과학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이론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수시로 변하는 과학의 주장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길을 정진해야 한다. 즉 과학은 과학의 길을, 신앙은 신앙의 길을 충실하게 가야 한다. 과학을 하는 기독교인은 과학의 학문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분석 방법으로 과학에 동참해야 한다. 최고의 과학적 지성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소망한다. 그와 동시에 과학을 하는 기독교인은 성경을 토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성숙에도 정진해야 할 것이다. 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입증되지만 신앙은 신실한 믿음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수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과학은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먼저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A-1

ORIENTAL

MARKET

Constitution

Everything You Need for Sushi

日本の食品  
한국식품

★

◀N

Wyoming

(505) 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 매혹의 헤이메즈산

이경화 장로

헤이메즈산(Jemez Mountains; Jemez 는 'Hay-mez'로 발음한다)을 둘러보면 뉴멕시코가 “매혹의 땅(Land of Enchantment)”이란 별명을 갖게 된 것이 이 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 산은 특유한 매력을 가진 산이다. 내가 옛날 유학생으로 뉴멕시코에 오기 전에 이곳 알버커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 Jemez산과 Los Alamos와 Santa Fe를 구경시켜주었는데, 그날 하루 만에 이 곳 뉴멕시코의 경치에 매료되어 버렸다. 그것이 나중에 다른 곳이 아닌 뉴멕시코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으니 헤이메즈산은 내가 현재까지 40년간 여기서 살게 한 동기를 제공해준 산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의 여류미술가 조지아 오키프(Giorgia O' Keeffe)도 헤이메즈산을 무척 사랑했었던 것 같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View from My Studio'라는 그림이 있는데 빨간 언덕이 주제가 되고 배경은 파란 산인데 이 산은 헤이메즈 산 중에 하나인 Cerro Pederal산이다. 뉴욕에서 활동하던 조지아 오키프가 뉴멕시코로 이주하여 37년간 헤이메즈산을 보면서 살게 된 이유 역시 매혹의 땅에 반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스튜디오에 서 남향인 창문으로 보이는 Pederal산을 하나담겨서 자신에게 주신 산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산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초대 소장이었던 핵물리학자 오펜하이머도 1942년 원자탄개발을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소를 세울 후보지를 미 서부지역 일대를 다니며 물색한 끝에 헤이메즈산 속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를 택한 것도, 그가 전부터 이 지역에 자주 방문하면서 이곳의 산과 푸른 하늘을 무척 좋아했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헤이메즈산의 아름다움이 연구소를 이곳에 세우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헤이메즈산은 누구보다도 먼저 원주민 인디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산이다. 뉴멕시코 주에는 19개의 인디언 푸에블로가 있는데 그중 여덟 개의 푸에블로가 헤이메즈산 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 이름을 나열해보면: Jemez Pueblo를 위시해서 Zia, Santa Ana, San Felipe, Santo Domingo, Cochiti, San Idelfonso와 Santa Clara Pueblo가 된다. 헤이메즈산은 이들 Pueblo Indian에게 신령한 산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산이 생긴 유래도 특이하다. 알버커키 시 옆에 있는 샌디아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지각의 융기로 서서히 생긴 산이지만, 헤이메즈산은 다이나믹한 화산폭발에 의해 생겨났다. 천삼백만년 전에 화산폭발로 시작되는데 이때 흘러나온 용암이 이 지역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층(Basaltic Layer)을 만들었다. 그 뒤 100여만 년 전에 두 번의 큰 화산 폭발이 일어졌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산재와 돌을 뿜어내어 주변을 덮었다. 이때 화산재를 뿜어내고 난 땅 밑에는 빈 공간이 생겨서 무거운 지층을 오랫동안 지탱하지 못하고 가라앉아버리고 만다. 이로 인해서 둥그런 원형의 함몰지역을 만들었는데 이를 지질학 용어로 칼데라(Caldera)라고 한다. 헤이메즈산의 Valle Caldera는 직경이 14마일이 된다. 알버커키 시 도시가 들어앉을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된다. 그 뒤 분화구 중앙의 굳어버린 용암부분이 지하의 Lava에 떠있는 상태에서 내부 압력이 커져서 서서히 밀려 올라오게 되어 돔(Resurgent dome)이 칼데라 안에 형성된 것이 11,254ft 높이의 Redondo Peak산이다. 알버커키에서 북쪽 Skyline을 보면 제일 높게 보이는 산이 바로 이 Redondo Peak인것이다. 그 뒤에도 작은 화산활동이 계속 일어나서 칼데라주변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Dome 형태의 산이 생겼다.

이번호에서는 필자가 다녀본 헤이메즈산 속의 여러 곳 중에서 특별히 좋았다고 생각되는 곳과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다녀오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몇 개를 골라서 소개 해볼까 한다.

### (1) Battleship Rock Picnic Area

군함의 뱃머리 같은 모양의 바위언덕이 Ponderosa 소나무로 덮힌 계곡에 불쑥 나타나 있고 그 밑 숲속에 Picnic Ground가 자리잡고 있다. 몇몇 가족이 함께 자주 갔었고 교회 주일학교 소풍으로도 갔던 곳이다. 언제나 맑은 개울물이 세차게 내려오는데 두개의 개울, 즉 West Fork Jemez River와 East Fork Jemez River가 이곳에서 합류된다. 개울가의 나무숲이 아름답고 맑은 편에 보이는 Jemez Canyon의 절벽의 암석도 멋진 경관을 보여준다. 33개의 피크닉 테이블이 있고 주차장은 피크닉 장소 안에도 있지만 NM4번 도로 옆에



도 새로 만들어놓아서 더욱 편리하게 되어있다.

이곳 북쪽 편에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산책하기 좋은 작은 코스가 있다. 작은 시냇물을 따라서 약 200미터쯤 북쪽으로 가면 높이 25ft정도의 작은 폭포를 볼 수 있다. Battleship Rock Falls라고 부르기도 하고 Bonita Falls라고도 불리우는 폭포인데 어린이를 데리고 가 볼만한 곳이다.

Battleship Rock Picnic Area로 가는 길을 알버커키에서 시작해서 설명해보면 먼저 I-25로 북으로 가다가 Exit 242에서 나와 NM44로 Bernalillo를 거쳐 24마일 서북쪽으로 가서 San Ysidro에서 NM4로 바꾸어 23마일 북으로 가면 된다. NM4번 도로로 올라선 뒤 2마일지점에서는 Jemez Pueblo를 통과하고 18마일지점에서는 Jemez Spring이란 작은 마을을 지난다. 마을 끝에는 산림관리를 하는 Jemez Ranger District 사무실이 있다. Jemez Area Recreation Sites지도를 얻든지 안내를 받기위해 들를만한 곳이다. 여기서 1마일 더 가면 도로 옆에 개울을 막아 놓은듯하게 보이는 Soda Dam을 지나게 된다. 길옆 주차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쉬어서 구경하는 관광객이 더러 있을 것이다. Soda 거품같이 생긴 바위모양은 뜨거운 온천물이 수만년 동안 솟아오르면서 물속의 광물질이 침전되어 묘한 모양의 바위가 되어 물을 막은 댐(Dam)이 되었는데 댐 밑이 뚫려 물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3마일 더 올라가면 Hummingbird Music Camp를 지나간다. 알버커키 Youth Orchestra/Symphony Program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매년 여름에 한 번씩 거쳐가는 곳이다. 1마일을 더 가서 Battleship Rock에 이른다.



[Battleship Rock: 군함의 뱃머리 같은 형태의 200ft 높이의 암석 밑에 Picnic Ground가 Jemez River를 끼고 있다]

## (2) Fenton Lake State Park

산 속에 있는 호수인 Fenton Lake는 Ponderosa Pine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7,900ft 고지에 있는 조용한 호수로 주변에 40개의 picnic site가 있다. Fishing 또는 Camping 하기에 좋은 곳이다. Fee는 하루에 \$5이다. 12살 미만의 어린이가 Fishing을 하고싶어 한다면 이곳도 좋지만 북으로 3마일 더 가서 있는 State Trout Hatchery로 데리고 가도 좋을 것이다. 주정부에

서 운영하는 Trout양어장이 있는데 주차장 옆 Seven Spring Brood Pond에서 어린이에 한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놓았다. 여기서 FR314번 산림도로 Dirt Road로 1마일을 더 들어가 있는 조용한 Seven Spring Day Use Area는 우리 가족이 자주 갔었던 Picnic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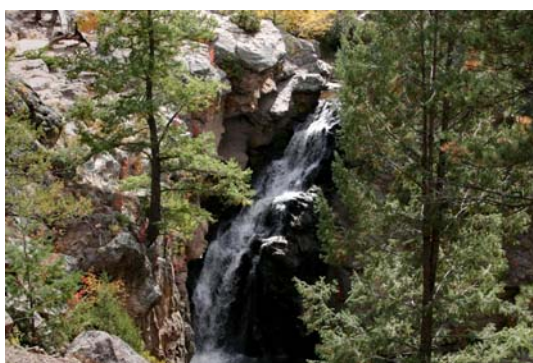
Fenton Lake로 가는 길을 Battleship Rock에서부터 소개한다면 NM4번 도로로 3마일 북으로 가서 La Cueva라는 곳에 이르러 NM126번 도로로 바꾸어 9.7마일을 가면 호수에 이른다.



[Fenton Lake 상류 Seven Spring 지역에 있는 연못]

## (3) Jemez Falls (해이메즈 폭포)

7,880ft 높은 곳 Ponderosa Pine숲속에 자리 잡은 Jemez Falls Campground는 부근에 있는 폭포 때문에 인기있는 곳이 되었다. NM4/NM126 Junction에서 Los Alamos쪽 NM4번 도로로 5.7마일을 가면 Jemez Falls Campground 입구에 오게 된다(Milepost 31을 지난 뒤 지점이다). 우회전해서 1마일쯤 들어가면 Camping장이 나오고 계속 0.3마일정도 더 들어가면 Jemez Falls Trailhead 주차장에 이른다. 피크닉 테이블도 여러 개 있다. Trailhead에 있는 표시판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1/4마일을 가면 Jemez Falls 폭포가 있다. East Fork Jemez River 개울이 70ft 계곡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Rail Guard가 되어있는 전망대에서 내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옆으로 돌아 개울가에 내려갈 수도 있다. 개울을 따라 상류 쪽으로 100미터정도 올라가면 작은 폭포 하나를 더 볼 수 있다.



[Jemez Falls: East Fork Jemez River에 있는 70ft 높이의 폭포]

#### (4) Las Conchas Trail

East Fork Jemez River개울을 따라 가는 137번 Trail이 있다. 이 Trail은 개울의 왼편과 오른편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약 2마일을 개울을 따라 내려가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통나무 다리와 징검다리를 여러 번 건너야 했으나 이제는 안전한 나무다리로 바꾸어 놓아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염려할게 없다. 약 2마일을 개울을 따라 완만하게 내려간 뒤 Trail은 180도로 꺾여 개울을 뒤로하고 산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곳에 있는 Trail Sign Post가 나무에 가려있어 miss하기가 쉽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라면 이 지점에서 뒤 돌아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체력이 좋은 성인들만 가는 하이킹이라면 1마일쯤 더 올라 가서 Aspen숲을 구경하고 되돌아 갈수도 있을 것이다. 맑은 개울물과 개울가의 들꽃과 울창한 숲과 바위 절벽의 경치며 어디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Best Trail이다.

Las Conchas Trailhead Parking 자리의 위치는 앞에서 언급한 NM126번과 NM4번 도로의 Junction(La Cueva 마을)지점에서 NM4번 도로로 10.2마일가량 Los Alamos 방향으로 가면 된다(NM4의 Milepost 36근방이다). 또 여기서 0.3마일정도 더 가면 Las Conchas Fishing Access Area가 있는데 피크닉하기에 좋은 장소다.



[Las Conchas Trail: East Fork Jemez River를 끼고 가는 Trail이다]

#### (5) Valle Caldera

NM4번 도로로 Las Conchas Fishing Access를 지나 2 mile쯤 Los Alamos 방향으로 가면(Milepost 38을 지난 뒤), 시야가 갑자기 트이면서 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왼편 북쪽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구경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다. 헤이메즈산의 탄생지점에 온 것이다. 화산이 터진 뒤 분화구가 꺼져 내려앉아 원형으로 된 함몰지역인 칼데라의 한 부분인, 풀만 자라는 Valles Grande(big valley)를 보게 된다. 이 Valle Caldera 안에 Redondo산이 있어서 14마일 직경의 Caldera 전체는 볼 수가 없다. 알버커키에서 텐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기회가 있으면 헤이메즈산의 칼데라 전경을 왼쪽 좌석에서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칼데라 지역의 대부분은 Baca Location으로 불려온 개인 땅이었

으나 30년 가까이 끌어온 교섭이 잘 매듭지어져 2000년 연방정부가 89,000에이커의 이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 땅을 Valles Caldera National Preserve로 정하고 자연 생태 보호를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소와 양의 목축도 하지만 3천 마리 Elk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칼데라 지역 안에 자유로운 하이킹은 제한하고 있으나, Fee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둘을 여기 적어 둔다. (<http://www.vallescaldera.gov/> <http://www.vallescaldera.com>)



[Valle Grande(big valley): 분화구가 꺼져서 만들어진 Valles Caldera의 한 부분이다. 왼쪽의 작은 섬 같은 언덕은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작은 Lava dome]

#### (6) Bandelier National Monument



[Bandelier National Monument: Frijoles Canyon에 있는 Tyuonyi Ruins]

푸에블로 인디언이 1150년부터 약 1500년까지 거주한 곳으로 헤이메즈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관광명소다.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현재 Visitor Center는 Remodel 공사를 시작해서 전시물을 공사가 끝날 예정인 내년 봄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공원 내의 모든 지역은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 Frijoles Canyon에 자리 잡은 400개의 방을 가진 원형의 구조로 지은 집터 Tyuonyi Ruin이 가장 인상적이다. 계곡의 절벽이 화산재가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이라서 쉽게 부식되어 구멍이 여기 저기 많이 난 것이 마치 구멍이 많은 스위스 치즈 같다고 비유되기도 한다. 1/2마일을 걸어 계곡으로 들어가서 Ceremonial



Cave를 가보는 것도 권할만한 곳이다. 몇 개의 사다리를 타고 140ft 높이에 있는 굴까지 올라가, 굴에 있는 Kiva를 보고 내려올 수 있다. 시냇가 그늘진 곳에 피크닉테이블도 잘 마련되어 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을 알버커키에서 설명해보면 Jemez Spring을 거쳐 가는 방법보다 산타페 쪽으로 가는 방법이 더 가깝다. I-25로 산타페로 가다가 시내를 거치지 않는 Santa Fe Relief Route 599를 Exit276A에서 택하고, 이어 Espanola로 가는 US84(US285)번 도로로 가다가 Los Alamos로 가는 NM502번 도로로 진입한다. White Rock으로 가는 NM4번 도로로 진입하여 13마일을 가면 Bandelier National Monument입구에 이른다. 만일 이와 반대방향인 San Ysidro를 거쳐 올 경우라면 NM4번 도로의 55.7 mile지점에서 Monument입구에 도달할 것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http://www.nps.gov/band> )

#### (7) 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



[Tent Rocks: 화산재가 굳어진 응회암(Tuff)이 부식되면서 만들어진 인디언의 텐트 모양의 암석]

Jemez산 밑에 있으면서 남쪽 변두리에 있는 까닭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최근에 와서 National Monument로 지정된 곳인데 알버커키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I-25로 산타페 방향으로 가다가 Cochiti Pueblo exit로 나와서 Cochiti Lake로 가다가 댐 밑에서 갈라지는 NM22번 도로로 1.5마일을 가서 Pueblo마을에 가서 FR266번 도로로 우회전해 들어가서 북쪽으로 4마일정도 비포장 도로로 가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나온다.

Trail은 모래길의 산길로 가다가 좁은 협곡으로 들어간다. 가장 좁은 곳은 1미터정도가 되는 좁은 협곡도 있다. 협곡을 벗어나면서 텐트모양의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화산 폭발시에 나온 돌이 화산재로 된 응회암위에 자리 잡았을 때 빗물에 씻겨 내리는 것을 막아주다 보니 텐트모양이랄까, 아이스크림콘 같은 모양의 바위가 형성된 것이다. (관련 홈페이지로 가기위해서는 <http://www.blm.gov>을 열고, Search Box에 Tent Rock을 치면 Kasha-Katuwe Monument의 link로 연결된다.)

이상으로 헤이메즈산의 명소 소개를 마친다. 상세한 얘기를 지면의 제약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website나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문헌을 참고해서 보충하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이와 같은 고백이 헤이메즈산을 둘러보면서 체험하는 여러분이 많이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1) “Guide to the Jemez Mountain Trail” by Judith Ann Isaacs. Butterfly & Bear Press, 2005.  
(2) “Best Hikes with Children in New Mexico” by Bob Julyan. The Mountainers, 1994.

<에세이>

###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정길

젊은 교수시절 우리를 가르치신 교수님들이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정년은 그저 먼 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정년퇴임교수가 고별인사를 하는 중에 더러 목메는 모습을 보면서는 한 평생을 학교생활에 바친 후 정든 교정을 떠나는 심정이 저렇게 표출되는구나 했습니다. 그때는 정년으로 퇴임하는 교수가 많지 않아서, 정년을 축하한다고 하면 혹시 실례가 되지 않을까 인사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던 저도 때가 되어 2007년 2월말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정을 떠날 때 허전한 심정을 달래기 어렵지 않아, 한 해 동안 퇴근할 때마다 책 한 권씩을 집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삼월부터는 주변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광주를 떠나 여기 미국 뉴멕시코 주의 앨버커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십 년도 더 되는 세월을 보낸 학교를 떠나는 것도 적잖은 변화였지만 67년이나 살던 곳을 훌훌 털고 떠나는 것은 저에게는 여간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그에 맞게 살기 편한 아파트로 옮기는데, 거꾸로 40여 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다 늦게 주택에 들어 살려다 보니 그 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든 게 설기만 한 타국에 자리를 트는 일이라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아예 한 가지씩 새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광주에서 이



삿짐을 꾸리면서부터 여기서의 적응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데는 그런 새로운 자세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은 딸 내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일단 사는 것이 일상이 된 후로는 더할 수 없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 아니라도 세상은 돌아가게 마련이어서 서두를 필요도 조바심할 필요도 없으니 그저 하고 싶은 일이나 찾아 하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 전에 사서 건성으로 읽다가 만 책들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편안하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은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임어당은 인간이 자신이 있어야 할 적소適所에 있어야 함은 분명한데, 자연의 분위기를 골라 자기 기분과 조화시켜 살기만하면 그 곳이 바로 적소라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이 이곳을 골라잡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나무·꽃·구름·바람·산·새·풀·인간 등이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게 하고, 허식의 틀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스스로를 빈 대나무처럼 느끼게 합니다.

생활의 간소화도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쓰던 가구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집안을 장식하고, 서재에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를 들여놓은 다음 인터넷을 깔았습니다. 고향의 친지들은 물론 호주나 일본 등 외국에 사는 오랜 벗들과 전자메일을 교환할 수 있어서 좋고, 몇 가지 공과금의 납부며 은행거래를 집에 앉아 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걷기는 인간을 완전무결한 자연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어서 자연의 오묘함을 오감으로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한 경험은 그 질과 내용이 겹지면서 한 경험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엘버커키는 로키 산맥의 끝자락 한라산 정상에 높이에 있으며, 사철 건조하고 햇볕이 강하여 천혜의 요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가까이에 3,000미터가 넘는 샌디아 산을 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가지며 산길을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으며, 저도 때때로 그들 중의 하나가 됩니다.

저의 정년 후 1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반년은 좀 힘들었으나 나머지 반년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야말로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철학자들이며 도덕가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천 가지 형태로 표현한 '기쁨은 재물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체험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작정입니다.

<2008, 3>

## 그분의 손에 있는 세상이건만!

최 치규 목사

나는 1938년생이다. 그보다 3년 전인 1935년에 '이란'이란 이름의 나라가 세계에 등장한다. 그 옛 이름은 페르시아(Persia)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그것이다. 페르시아는 우리 귀에 '페르시아'라고 익혀져 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눈 감으면 찾아드는... 그런 노랫말이 기억에 난다. 그 Persia는 주전 6세기경에 고레스(Cyrus)에 의하여 건설되어 제국을 이룬다. 바벨론 제국을 종지시키고 세운 새 제국이다. 성경에 그의 등극초기에 이스라엘의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축령을 내린다.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란 이름이 무척 우호적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패망 약 70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바벨론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무너뜨린 그 성전 재건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가 오늘의 이란이다.



이란의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의 꽤기만만한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다. 그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를 향하여 비방을 퍼붓고 있다. 고레스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고레스는 그 칙령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The Lord, The God of Haven)이란 최대의 경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란의 대통령은 거침없는 독설을 토한다. 무슨 억하심정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뉴스 메이커들은 그가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났다고 주장한다.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시대에 따라 개종을 하였고 그 후손인 그가 유대인의 후예란 것을 감추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사실을 들추는 기사들이 있었지만 묵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혈통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의 가시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버티고 있는 곳은 바로 이란의 텍밀과 같은 곳이다. 핵보유국의 위치에 있는 이 이란이 오늘 세계를 비틀어 흔들고 있다. 연초에 이란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연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조이게 하였다. 나보다 세살 많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사망에 아랍연합에 둘러싸여있는 이스라엘, 우리의 강원도와 같은 땅 위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고레스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를 세상에 오게 한 날과 같이, 언젠가 떠날 날이 있게 하실 그분이 지금의 우주를, 나라들을, 사람들을 살피고 있음을 알지어다.

## 요 임금과 왕비

## 그 시간

어느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의 모두를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샘물처럼 맑고 호수같이 잔잔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남들이 높아 보였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손이 나를 넘어뜨린 사람과  
용서의 악수를 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으로 설레이기 시작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눈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쉬는 의자에서/하늘소리

고대 중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요순시대의 이야기다.

요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다.

만백성이 길가에 부복하여 왕의 행렬에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왕에게 무한한 존경과 복종의 뜻을 보였다. 그런데 기현상이 발생했다.

길가 뽕밭에서 뽕 을 따는 처녀가 부복은 고사하고,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뽕만 따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마디로 왕의 권위 따윈 알 바 없다는, 일종의 배반행위였다.

“어가를 멈춰라”

왕명에 따라 천지를 흔들던 악대도 음악을 중단하고, 화려한 행렬이 제자리에 섰다.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는가?”

친위대장이, “촌구석의 뽕 따는, 무식한 처녀인 줄 아뢰옵니다. 소신이 가서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왕의 눈에는, 처녀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 거의 환상적이었다. 신녀가 아니고선 어떻게 저리도 곱고 매혹적일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다. 내 좀 걷고 싶던 차에 잘 됐다.”

왕이 직접 뽕따는 처녀에게로 위풍당당하게 걸어갔다. 가까이 왕이 왔는데도 처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뽕만 따고 있었다. 왕은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나? 왕이 너를 찾아왔다.”  
그래서야 이 처녀는, 몸을 돌려 정중히 목례를 했다.

그 순간 왕은 크게 실망을 했다. 아무리 권문세가의 영애라도 왕이 손만 잡으면 왕의 것인데, 이 여인은 통 그러고 싶질 않았다. 처녀의 얼굴에, 보기에 민망한 흑이 달려있었던 것이다.

왕은 슬그머니 객기가 발동했다.  
“그래, 만 백성이 짐을 우러러 경의를 표하고, 땅에 부복하여 순종의 뜻을 보이거늘, 너는 어쩐 연고로 부복은 고사하고, 아예 오불관연(吾不關焉)한단 말이나?”

그러자 이 뽕녀의 입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당당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습니다. 어지신 왕에겐 동서남북의 어느 백성이고 심복치 않은 자가 없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에게 부복하는 일만이 경의가 아니고, 부모의 뜻에 따라 소임에 충실함이, 더 충성스러운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普天之下 莫非王土 莫非王臣, 東西南北無思不服)

“부모가 뵈이 그리 대단해?”

“은혜가 무한하여, 자손은 영구히 받들어야 하고, 효는 만행의 근본이며, 모든 선행 중에서 으뜸인데, 군왕이 마땅히 그 모범을 보이셔야 하거늘, 어찌 이를 탓하려 하시옵니까?

(孝即 萬行之本, 惠我無疆 子孫保之, 百善爲孝先)

왕은 감탄하여 절로 미소가 피어올랐다.

요것 봐라. 날 가르치고 있다. 하! 고것 참 기이하구나! 하하하... 왕은 첫번째 질문에서 크게 감탄하여 두번째 질문을 하기로 했다.

“넌 헌데, 얼굴에 흑이 달려 창피하지 않느냐?”

“신체발부는 하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사이오며, 하늘의 뜻은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것이온데, 어버이신 왕께서 어떤 연고로 소녀의 생김새를 조롱하시옵니까? 인간의 도로써 인간을 다스려야 하고.(以人治人) 외양보다는, 내면의 진실을 존중해야 하는 줄 아옵니다.”

왕은 더욱 놀라, 신하 중에 이런 어질고 현명한 신하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다. 왕은 그래서, 내친 김에 엉뚱한 질문 한 개를 더해보았다.

“너를 내 왕비로 삼고 싶다. 날 따라가겠느냐?”

뽕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백성들에게, 학문보다는 예를 먼저 가르치셔야 하고, 재리보다는 도리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군왕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왕께서 그럴 뜻이 있으시면,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예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당연히 먼저 양친의 동의를 구한 다음, 혼서를 보내시고 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장 모범이 되는 절차를 준행함이 마땅한 줄 아온데 어이하여 소녀를 노상납치하려 하시옵니까?”

왕은 크게 감탄했다. 실로 말씨름에서, 왕이 패한 기분이 들 정도라 어안이 빙빙했다.

이 넓은 하늘 아래, 누가 감히 왕인 나에게 저렇게 의롭고 유식한 도리를 당당하게 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인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여인에게 빠져들어, 마치 때 맞춰 내리는 단비처럼 매마른 대지를 적심 같도다. (心入人也 如時雨之潤)

이 노변의 삼문(三問)이야 말로, 요임금이 한, 민정시찰의 가장 큰 성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왕은 예법에 따라 청혼을 하고 혼서를 보냈다. 만 백성이 우러러 경축하는 결혼일에 왕비의 가마가 왕궁에 도달하던 날, 수많은 신하들과 궁녀들이 흥분하며, 왕비가 얼마나 대단한 미인일까 궁금증이 불타올랐다. 그런데 막상 가마문이 열리자, 왕비를 침 본 궁녀들의 입가에 조소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조소의 미소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왕비는, 무수한 시종들 앞에서 팔을 뚝뚝 걸어 올리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궁녀들이 더욱 비웃으며 말했다. 왕비는 “난 왕의 아내다. 내 손으로 진지를 해드리는 게 도리이다. 저리 비켜라.”

그렇게 왕의 수라상을 준비한 다음에 사치스러운 궁녀들의 복장과 경박한 행동을 지적하여 호령했다.

“오늘부터 백성들보다 사치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농어촌의 선량한 부인들보다 잘 먹거나 더 게으른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어버이신 왕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보다 예와 도리가 모자라면, 어떻게 왕께서 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단 말이나?” 왕비의 엄숙하고 단호한 질책을 받은 궁녀들의 비웃던 입이, 모조리 놀란 조개처럼 굳게 다물어졌다.

그날부터, 나라의 질서와 도덕이 하루가 다르게 바로 서고 꽃피기 시작했다. 당장 궁중이 달라지고 대신들이 달라졌다.

공직자가 달라지니 백성이 금새 달라져, 나라엔 도둑이 없어지고, 세상인심이 어딜 가나 풍요로워 졌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여인이,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창조하는 불가사의의 기적을 낳았다. 왕으로부터 촌부까지, 백성은 하나같이 바른 사고와 예의를 지켜, 온 천지가 높은 수준의 도덕사회를 이루었다.

먼 훗날 왕비가 돌아가시자,

온 나라의 백성들과 왕은 크게 목 놓아 엉엉 울었다고 한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호호백발의 노인들까지, 높은 신하에서부터 저 눈먼 땅의 무지한 노동자까지, 모든 백성이 땅을 치며 울었다는 것이다. 왕비의 은덕을 높이 기리고 사모하는 백성들 중엔, 그 서거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지거나 식음을 꺾고 애도하는 자가 부지기수라 했다.



## [종교 소식]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교회예배시간

주일에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록펠러의 삶**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으며,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록펠러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움을 받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중에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글 제공: 이석종 목사

## [생활 상식]

**『전화기 청소할 때는 식초물로...』**

전화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손때가 쉽게 묻어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잘 지워지지 않는 손  
때는 식초를 두 세 방울 떨어뜨린 후 물로 닦아주는 게 좋  
다. 이렇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 먼지가 달라붙지  
않고 때도 덜 타기 때문이다.

**『견줄지 자국 쉽게 떼어내기』**

정리하기 편리하게 붙여둔 견줄지도 떼어내고 나면 흉한 자  
국으로 남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 자국은 걸레로 아무리 문  
질러도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다. 견줄지 자국 없애는 데는  
얼음으로 차갑게 만든 후 떼어내거나, 드라이기로 열풍을  
쐬어 가면서 떼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견줄지뿐만 아  
니라 끈적해서 잘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은 늘 골칫거리인데,  
테이프 자국은 아세톤으로 지우면 가장 깔끔하게 지워지고,  
손에 본드나 풀이 묻었을 때는 쓰다 남은 콜드크림으로 살  
살 문질러도 쉽게 지워진다.

**『식탁에 생긴 뜨거운 그릇자국 식용유 묻혀 닦으면 'OK'』**

깜박 잊고 김이 펴릴 나는 주전자나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  
놓았는데 흰 얼룩이 생겼다. 이럴 때 마른걸레에 식용유를  
묻혀 가볍게 문질러 보자. 혹은 소주나 담배 담근 물로 닦아  
본다. 웬만한 나무 탁자의 얼룩은 없어질 것이다. 단 합판으  
로 된 이종 도장한 제품의 안쪽까지 하얗게 되었다면 소용  
이 없다.

**『스푼 윤내기』**

오래된 스푼과 젓가락에 윤이 나게 하려면 소다를 섞은 물  
에 담가둔다. 뜨거운 물 1리터에 소다를 3큰술 타서 섞은  
후 하룻밤 담가두면 번쩍번쩍 윤이 난다.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n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An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8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  
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6-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a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  
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  
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849)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E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연합장로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루터회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E35 ABQ, NM  
87111  
(505-296-0336)

####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505-764-1900)

##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 중재서비스

###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 리오란초

### Rio Rancho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 로스 알라모스

###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Los Alamos  
(505-662-9681)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 산타페 Santa Fe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 겔럽 Gallup

###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 라스크루세스

### Las Cruces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J, Las Cruces  
(575-496-2445)

###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 화밍톤

###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사고/팔고

## 구인/구직

##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  
으로 연락주세요 \*\*\*

## 정보마당

## 김영신 부동산

"주택 구입 절호의 기회"  
"최저 이자율에 집값도 급락"  
"First Time Home Buyer", \$8000 Tax Credit!

\* Plus, Loan Modification/융자 조정 프로그램

경제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으셨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주택 페이먼트  
어려우신 분 도와드립니다. 페이먼트  
삭감 또는 이자율 재조정 가능합니다.

\* Also, "상업용 건물 투자/새로운 사업체 구매"

Call me for All-in-One Service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JADE  
Southwest Realtors  
(505) 293-5500

렌트/부동산

도와주세요

###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ICHIBAN**  
Japanese Restaurant

Phone (505) 899-0095  
[www.ichiban-alb.com](http://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stamp  
우표